

우리말과 우리글의
밝은 앞날을 기대하며 만든
10월 2차 게시 내용을
소개합니다.

너랑 나랑 우리말로

쉽표, 마침표.



문학 속의 빛나는 우리말

운동주 시인의 <서시>, <별 헤는 밤> 2



너랑이가 알려드립니다! '우리말 상담소'

운전중/운전 중 3



우리말로 다듬어 보는 '말 다리미'

스크린 도어 → 안전문 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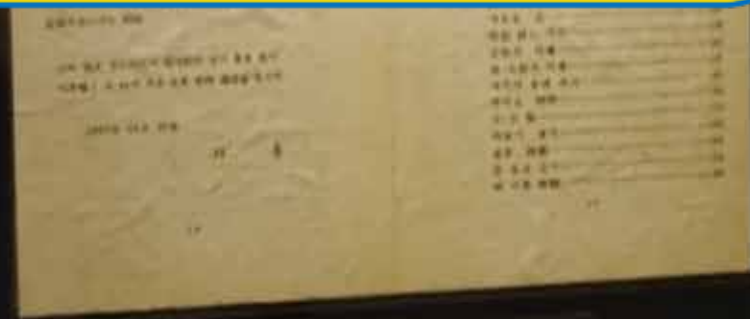


목차



윤동주 시인의 <서시>, <별 헤는 밤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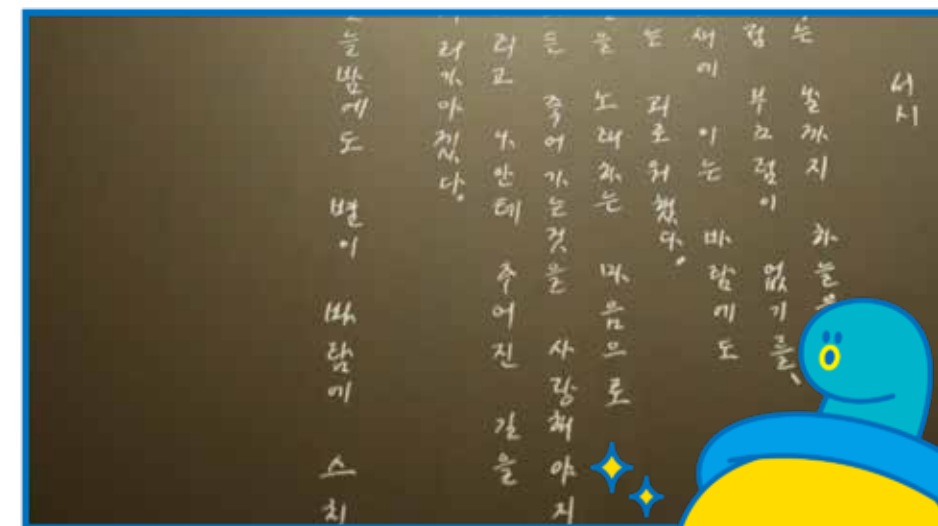
일상적인 '고유어'를 사용해 분위기를 돋우는
윤동주 시인의 <서시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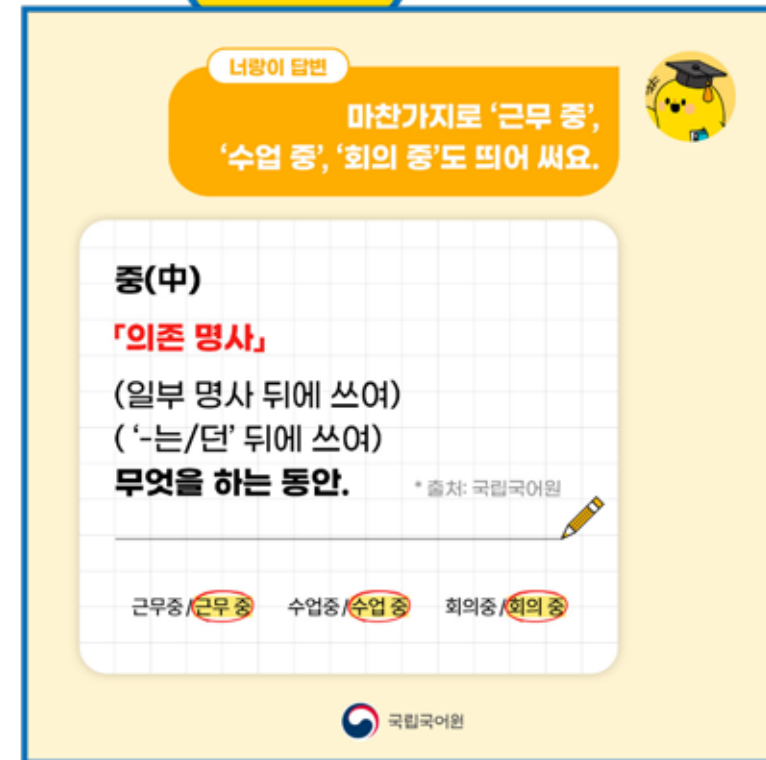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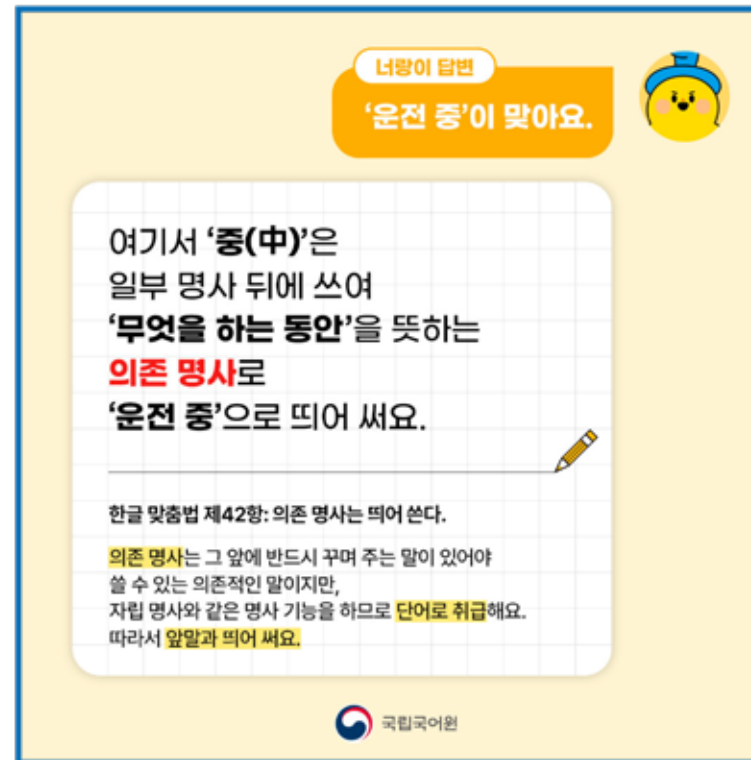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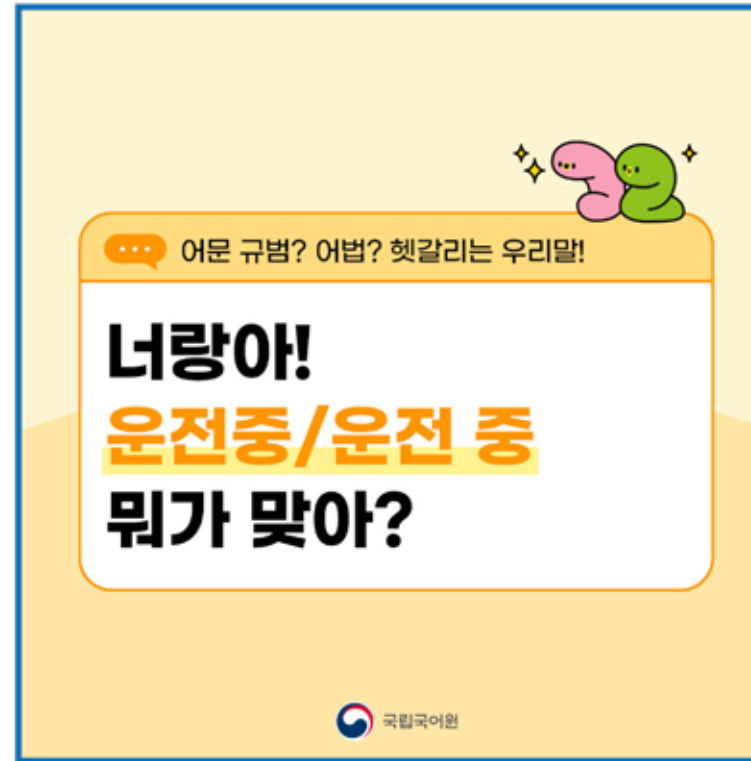


우리말의 여백과 운율을 느낄 수 있는
윤동주 시인의 또 다른 대표작 <별 헤는 밤>



고운 우리말의 미학을
품은 윤동주 시인의 작품









유튜브



블로그



인스타그램



2025년 10월 호 2차 **심포, 마침표.**